

창세기 26장에 대한 주석적인 고찰

박 종 철 교수

1. 창 26장은 그 성격상 짜집기 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장이다. 이 뿐 아니라 25장에서 야곱-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26장에 와서는 결말점을 제외하고는 야곱-에서에 대한 암시가 없다. 또한 26장에서는 앞장에 비추어 전혀 새로운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Skinner는 “본 장은 소위 바르게 말해서 이삭 전설의 전체 cycle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된 사건들로서의 전적으로 되어 있다. (특히 20장)”고 말하며 Driver는 “본 장은 이삭의 부모들이나, 또는 자기 자녀들과 관련되는 사건과는 별도로 이삭 개인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창 26장은 사실 많은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일치되는 듯한 요소들을 갖고있다.

a) 가나안에서 홍년을 만남 (26: 1, 12: 10)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감 (26: 1, 20: 1)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여 내어 줌 (26: 7, 12: 11-13)

아비멜렉에 의해 책임 추궁을 받음 (26: 9-10, 20: 9-10, 12: 18-19)

아비멜렉의 보호하에 놓임 (26: 11, 20: 14-16, 12: 196-20)

우물 문제(아브라함의 경우는 한번이다). (26: 15, 18-21, 21: 25-26)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브엘세바에서 계약 맺음(26: 26-31, 33, 21: 22-34)

아비멜렉 방문시 자기 군대장관을 대동함 (26: 26, 21: 22, 32)

아비멜렉과 비골이 족장들에게 한 말이 같음 (26: 28-29, 21: 22-24)

b) 족장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냄 (26: 20-22, 27, 30, 31 등)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야웨 이름을 부름 (26: 25, 12: 7-8, 21: 33)

족장들이 야웨의 축복으로 부자가 됨 (26: 12-13, 24: 35)

c)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삼고 경험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26: 5, 24) 확인되는 것이다. (26: 2-4, 25) 뿐만 아니라 열국의 대표격인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이라는 나그네를 야웨께 분명히 복 받은자 (26: 29)라고 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창 26장이 연대기적으로 바른 순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Gunkel은 순서가 바르지 않다고 보며 이 야기가 “야곱—에서 역사를 서로 텅겨낸다. (sprengt die Jagob-Esau Geschichte aus einander)”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앞의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삭의 토레도드의 주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Wellhausen은 작품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J.E의 26장의 원래 순서는(3절은 Q에서 온 것임) 24장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어 준 역사는(26:1-11) 리브가가 이미 두 아들의 어머니였고, 그 아들들이 장성한 남자들로 성장했다고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26:19-34절의 앞에 올 경우는 이해가 되며 26:33절까지 계속 이 순서로 되어질때 25:22절의 야웨께 물으러 가는 것에 빛을 던져 준다.”

이것은 26:1-11절을 25:19-34절 앞에 두고 26:23-33절도 역시 그렇게 한다. 26:1-5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고 15절과 18절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Aalders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순서는 바르지 않다고 본다. “26:1-11은 연대기적으로 보아서 바로 앞의 것에 뒤따라 오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하여 내어 준 것은 만약 그녀의 아이들이 동행을 했다고 하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삭이 리브가에게 결혼한 시기와(24장) 25:24-26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의 출생 사이에 놓여져야만 한다. 이것은 26:1-33의 전 장이 25장 앞에 놓여져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26:18은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Gispén도 같은 입장을 말하는데, 그는 26:1-5에 이야기 된 것은 아브라함 죽음 후의 시기를 주장하고 7-11절에 언급 된 사건들은 1-5절의 사건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한다.

이에 대해 Holwerda는 27장(26:34이후)이 25:34절과 잘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직도 젊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그럴 듯하다. 그러나 큰 문제는 왜 편집자가 그 장들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누지 못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Wellhausen이 판단하는 대로 편집자가 역지로 이 전환(umstellung)을 하여 이삭 역사 초두에 J.E와의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26장을 자연적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편집자가 서론적인 말(25:19) 바로 뒤에 이 역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작품의 통일성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우리는 J.E.P를 믿지 않으므로 이런 전해가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 그리고 Aalders나 Gispén은 26:18절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26장을 25:19절 바로 앞에 두는 것은 26장 자체를 새로운 장으로 해결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6:1-22절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랄과 그 환경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 사이에 아무런 gap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8절이 아브라함 죽음 후에 놓여질 때는 자동적으로 26:1-22과 23-33, 34절 이하로 즉, 전 장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이며 연대기적으로는 25장 이후이다.

3. 학자들은 1절의 흉년을 다른 사실들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아비멜렉이 20:2절의 아브라함 때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비교 21:22-34), 21:22-34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이며(비교 21:5), 그리고 25:7에는 175세이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은 것은(26:18) 21:22-34절과 여기 26:1에 언급된 이야기 사이에는 80년이 넘는다. 그러므로 동일 인물이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비멜렉이 한 말(26:9-11)은 그가 20:1-7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Dillman과 같은) 군대장관 비골 역시 26:26에서와 21:22, 32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여기 아비멜렉은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왕 바로라는 타이틀처럼 직분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삼상 21:11에 근거해서 시 34의 아비멜렉이 가드 왕 아기스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C.J.Goslinga COT의 삼상21:11참조). 그런데 문제는 군대장관 비골도 직분 이름이냐는 것이다.

그랄: 초기에는 종종 가자의 남쪽 6마일에 있는 움 드지엘랄로 보았다. 그러나 26:1은 그랄이 가데스와 숲 사이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디 드지에폴에서 찾았다(알더스, 드라이버). Flinders Petrie는 텔-드지에메에서 그랄을 찾았다. Van Peursen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Bijb Handboek I p. 14, 56). 또, Simons는 어디인지 불확실하다고 한다.(Opgravingen in Palestina p. 77)

블레셋: 많은 비평가들은 이 말은 시대착오풍의 말(anachronism)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말은 J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주전 1200년경에 대두되는 것이라고 한다. Garstang은 블레셋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수의 블레셋인들은 대이동에 앞서 분명히 도착하여 네게브 경계에 있는 팔레스틴 남쪽에 이미 정착하였던 것 같다. 그러는 동안 약간은 애굽 군대에서 실제로 봉사하여 저들 이웃 백성들과의 큰 전쟁에서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창 21:32에 보면 블레셋인들은 네게브에도 왔던 것으로 보인다.(R. S.Macalister, The Philistines)

그 땅 : 25 : 11에 의하면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 하갈의 우물에 거하였다. 카일은 이삭이 가나안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에 '그 땅'은 가나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Holzinger는 이삭이 헤브론 옆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그의 죽음과 함께 (25 : 11) 없다. 이삭이 그 땅에 간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거처들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삭이 결혼한 이후로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하여 (25 : 1) 더 이상 이삭과는 같이 거처하지 않은 것 같다.

흉년 (24 : 1)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을 떠났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한 자연 재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가나안에 생긴 흉년은 아모리인들의 죄악의 분량이 찰 때 임할 징벌의 예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표였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일찌기 끝장내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참음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회생시키시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의는 자기의 변명하지 못할 권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4. 2절에 보면 이삭은 이전에 자기 아버지와 애굽에 갔던 것처럼 (비교 창 22 : 9) 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다. 아브라함은 블레셋을 거치지 않고, 네게브를 거쳐갔다. 이삭은 블레셋을 거쳐 가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배가 고프면 언제나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 된다 (Dalmann, Aug I. p. 135). 현대의 기도문을 인용해 보면 "주여, 망루를 잠그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을 보아야 하겠나이다."고 한다.

2절의 '거하다'(사칸), 3절의 '유하다'(굴), 6절의 '거하다'(야사브) 등의 동사들은 '단기간의 며칠'이 아니고, '오랜 기간 머문다'(prolonged stay)의 뜻이다 (Eerdmans OTS. I. p. 4).

5. 계시형태는 '나타나는 것'(X기 Verschijning)이다 (Hölscher, Die Proferten p. 84). 이것은 밤의 환상(Nachtgesicht), 꿈의 현몽을 생각하게 한다. 알더스는 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그런 '나타남'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의 임재의 표징 (teken)이라고 한다.

6. 3절에서는 야웨 자신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이 되고 있다. 여기 '자손'(제라)은 구약에서 집합적인 의미가 있으나,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유일한 자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이 모든 땅'은 히브리어로 כל הארץ인데 כל은 כל의 고어용이고, 땅이 복수형으로 된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영역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경계들'(al deze streken)을 의미한다 (대상 13 : 2, 대하 11 : 23).

4절의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의 한역은 니팔형 수동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12 : 3은 니팔형이다), 여기서는 히트파엘형 능동적 재귀동사이다. 이는 '스스로를 축복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이 축복으로 스스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das Glück dessen mit dem Man sich segnet sich selbst wünchen).

이런 우주적 약속이 이삭에게 전수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족장들의 공덕 때문은 아니다. 이 점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세의 말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재 확증되는 이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온 말 (22 : 18)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바는 때로는 본인들의 공로를 초월하여 그 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뜻이 여호와에 의해서 긍정되고 있음을 알아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한 것이다." (창세기 p. 16)

그런데 후대 유대주의 신학은 자기들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 약속의 우주적 성격을 상실하였다. 5절 말씀을 3절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맹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7. 아브라함의 순종 기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3-5 혹은 3b-5) 후대 편집자의 추가로 본다. Skinner는 "후대 작성의 많은 흔적들 (many traces of late composition)을 말한다."고 말하며, Driver는 "이 귀절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땅의 약속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후대 편집자가 만든 부연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p. 250)고 말한다. A.R.Hulst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것은 여러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말들을 집합 시킨 것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등) 후대 본문인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특징은 어떤 구체적인 환경에서 분리된 일반적인 진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와 22 : 16-18에서도 후대 봉사신학 (verdienst theologie)의 사건 경위를 말한다고 한다 (Loven en Geloven p. 49-50).

미서마르티 (> πηδύο)를 헬리취는 확실한 이유 없이 "거짓되이 접붙여 졌다" (falsch angefügt)고 말하며 Käsem은 "1이 지시"(Meine Dialektik)

로 Strade은 '관찰하는 것'(das zu Beobachtende)으로 말한다. 또 어떤 이는 대제사장 후대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봉사'(priesterdienst)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카일은 "...내 명령과...지켰다."를 "야웨의 관심을 조심했다."(to take care of Yahweh's care)로 본다.

8. 고고학의 빛이 성경해석의 절대적 표준으로 군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이해에 도움을 준다. 고대 근동 문서, 특히 계약 문서들이 발견되므로 해서 대왕과 그 신하왕 사이에 맺어진 소위 말하는 종주권 계약(suzerainty covenants)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계약의 이상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전문(신1: 1-5, 사36: 4; ANET p. 203 에서 히타이트왕 Mursils II와 그 신 하 Amurru의 Duppi-Tessub와 맺은 계약)
2. 역사적 서언(신1: 6-4: 49; ANET pp. 203-204)
3. 규정들(신5-26장; 재정, 군사, 맹세 등 여러규정 "너는 Hatti땅의 어떤 부분도 원해서는 안된다." The Biblical Archaeologist XVII p. 830)
4. 저주와 축복(신27-30, 렘49: 35, 겔39: 3, 호1: 5; ANET Supplement p. 659)
5. 증인들의 거명 및 기원(신31: 19-22; 31: 28-32: 45; 사1: 2; 미6: 1; 눅11: 40 ANET p. 205에 "이들이 이 계약과 맹세에 증인들이 되게 하라"고 되어 있다.)
6. 안치와 공적 낭독(신31: 9-13; 24-27; ANET p. 205에 Suppiluliumas er Mattiwaza of Mittani 사이에 맺어진 계약)
이런 고대 근동 계약체결의 성경적 의미를 알려면 M.G. Kline, Treat of the Great King: The Covenant Structure of Deuteronomy, Grand Rapids, 1963.

• G.Von Rongen, Zijn vast verbond, studies-over de bijbelse verbonden in het licht van buiten-bijbelse verbondsteksten, Goes 1966.

• C.Van der Waal, The Covenantal Gospel, Nearludia: Inheritance Publications, 1990을 참조하라.

이 여섯가지 요소들이 언제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요소들이 빠지고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이 있다. 성경저자가 언제나 이 pattern을 의식하면서 말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창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는 서론적 선언(1, 7), 역사적 선언(7), 약속들(1, 4, 5, 7, 15, 16, 18-21). 야훼로 말미암은 비준

행위(17, 비교 렘34: 18-19)가 있다. 그리고 창17장에 있어서도 선언(1), 규정(1), 규정(1), 약속들(2, 4-8), 보증의 표시(9-13), 저주(14), 축복 및 확인(16, 19-21)이 있으며, 이삭과 족장이 맺은 계약에도 창26: 2-5에는 언약확인, 아브라함에 의한 맹세 및 축복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야곱족장과 맺은 계약에는 서언(28: 13; 35: 11), 약속들(28: 13-15; 35: 11-15), 표징(28: 18; 35: 14)들이 있다.

9. 26: 7-12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12장)와 후에 그랄에서(20장) 당한 기사를 기억나게 한다. Gressmann은 "아름다운 조비의 겁탈"(Raub der schönen Ahnfrau)동기라고 한다. E.A.Speiser는 "The wife-sister Motif in the patriarchal Narratives" Biblical and Other Studies, Havard University press 1963 pp. 15-28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대 후리안 사회에서는 아내가 법적으로 남매신분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강력한 결혼 유대가 맺어진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종종 소년과 결혼해서 그 여자를 자기 남매로 수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별개의 서류과정-아내와 남매관계-를 밟는다고 한다. 이런 남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결혼 계약을 깨뜨리는 것보다 더 심한 징벌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모계사회의 잔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 형제가-생득적이든, 수양적이든-자기 남매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를 Wife-Sister로 간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성경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시대착오풍의 말로서 아내 쪽의 계열의 순수성을 보증하는데 그 기술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결코 아니다.

10. 어떤 이들은 또한 이 귀절들에서 야훼가 이 시대에 아직도 도덕적 성품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훼의 도덕적 성품은 후대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윤리적 유일신론이 들어옴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R.Smend 등).

아이호르토도 이 부분에 대해 표제를 붙이기를 '도덕적 규범가치의 약함'(Schwächen in der Geltung der sittlichen Normen)이라고 하는데(Theol. des AT. III p. 84) 이는 거짓말이 여기서는 적어도 허용 내지 옹호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창12, 20, 28장 모두 거짓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런지 몰라도 이 세 본문이 거짓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왕보다 아브라함에게나 아비메렉 왕보다 이삭에게 책망을 한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을 이방 왕들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래야 우리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나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을 했어야 했다고 하지 않고 있다. “네가 죄를(아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할 때 ‘죄’는 법관 앞에서의 죄책 상태(The Status of Guilt before the Judge)이다.

11. 자유주의자들은 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고 하여 어느 것이 원 초적이고(26장이 원래의 것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후대의 것인지를 살피는 작업을 한다. 12, 26장은 J자료이고 20장은 E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세가지 이야기는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사적으로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권세보다 힘이 더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인간의 부족함(거짓 행위)을 인하여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 자손이 나겠다고 하시니 무효화 될 뻔 했으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어코 자신의 약속 성취를 위해 보호해 주심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삭의 경우는(26장)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더욱 생명의 안전이 있었을 것을—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20장) 그 사회에서 형성된 역사적 전통인데—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는 의외의 반응을 야기시키는 섭리를 볼 수 있다.

12.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삭이 그랄에서 지은 농업에 대해 말함으로써 종교사학과 학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들은 여기서 세 시기 즉, 베두윈의 유목민 종교, 농경종교, 선지종교로 구분짓는다. 이스라엘인들은 목동들이 없고 전형적인 유목민 종교를 가졌다.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을 탈취하여 땅의 절기에 관계된 종교를 가졌다. 광야 생활이 ‘성숙한 백성들(ausgewachsenes Volk)’에게는 불가능했겠지만 목동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큰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옛날생활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Wellhausen).

13. 농사의 소득이 백배(בָּרֵךְ וְרֵבֵב)라고 말하는데 여기 “쉐아림”은 구약에서 오직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로 동사형으로는 잠언23:7에 ‘생각하다’(한역은 명사형)가 사용된다(비교 막4:8, 눅8:8). 비옥한 땅에서도 보통 25-50배정도 이상 수확되지 않는데 백배라 함은 특별한 축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LXX는 βάρη(세아림)으로 바꾸어 ‘보리의 배’라고 번역했다. 백배는 최고의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다(마13:3).

14절의 בָּרֵךְ (아부다)는 ‘증’이라 한다. 사전상으로는 문법상으로 근

거가 없고 이 의미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는데 ‘개화된 사환(kultivierter Boden)’을 의미한다고 Erdmans는 말한다. Spenser는 족장시 유목민들을 생각해서 ‘수행원(retinue)’으로 LXX는 νέωπρῖα 로 번역한다(출1:3).

14. 15절의 우물을 막는 동사를 Aalders는 과거완료시상 ‘막았었다(had closed)’로 하여 18절의 우물이 또 다른 우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15절은 18절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설명이라고 하면 17절 이하에 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삼상9:9은 실제로 11절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즉, 15절은 16-18절의 예비로 보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König는 15절을 단순히 과거로 보고 18절을 과거완료로 보는 것 같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명령에 즉각 집을 떠났다. 여기 우물의 의미를 알아야겠다. 그것은 살리는 물(levend water)이다. 그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생명 문제이다. 더운 지역에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우물을 판 자는 그 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당시의 우물을 두고 여러 종족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우물을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얻으려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와는 상반되지만 그가 판 우물을 막았던 것은 이삭의 새로운 정착으로 그들이 위협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몇개의 우물이 이삭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막아 이삭을 강제로 그 지역을 떠나도록 한 것이다. 26:11에 이삭에게 부여된 ‘보호권’(Rechtsschutz)이 생존권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이삭이 떠나지 않았으므로 아비멜렉은 떠나라고 명함으로 나그네의 거주 허가증이 박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계곡에(בְּגֵרָר) 정착했는데 그곳은 Wādi Ghazzeḥ라고 본다.

15. 우물로 연유한 싸움은 끝이 나지 아니했다.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판다. 18절을 여자적으로 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판다’(וַיָּבֹאוּ... וַיִּבְּאוּ)가 되겠지만 ‘다시 판다’로 해야 한다(Joüon §177b).

이들이 이곳(남쪽 땅)에서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으나 그것들은 그랄지역 내에 있어서 블레셋인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권한으로 싸우면서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삭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샘의 이름에다 붙여 에섹(פְּשֶׁק, 다름)이라고 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완력을 자제하고 그는 스스로 나그네임을 알고 주의 구속하시는 행위를 바라 본 것이다. 다른 곳에서 판 우물에서도

다툼이 있자 이삭은 잇나(יִצְחָק 대적함)라 하고 여기서 떠 옮겨 그랄 계곡에서 북동쪽으로 약 50-60km 이동하여 우물을 파니 싸움이 없으므로 러호보트(רִחוּבוֹת)라 했다. 여기서 이삭은 생의 공간을 만끽했다. 이것은 오늘날 엘-로헤바라 한다.

16. 이삭이 언제나 돌아만 다니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겠다. H.Bavinck는 (Dictaat Hist, Rev. p. 323)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그 원인을 이삭 성품의 의타심에서 찾는다. 이삭에게는 의지력과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Aalders는 좀 더 유연스럽게 이삭의 '평화스러운 마음'(vredelevendheid)을 말한다. König은 이삭의 다른 사람과의 친숙성(vertröglichkeit Issaks)을 자랑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공식적인 덕이 실물처럼 설명되고 있다"(eine wichtge formale Tugend Verauschalicht)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심리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아무리 교상한 의미로 일어날 경우에도 그렇지 않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이삭은 나그네로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저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리(공간)를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 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차이가 없다. 아브라함의 창23장에서 헛 자손들과 공손하게 교섭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는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로서 매장지를 찾고 있다(23:4).

전체 문제를 오직 종교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삭은 창 26:27에서 보듯이 아비멜렉에게 겁을 내는 겁장이는 아니었다.

17.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와이이야말)라고 하는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은 르호봇은 브엘세바보다 85m 더 높은데도 이 표현을 한 것은 "알라(올라가다)는 애굽에서부터 유다로 가는 방향의 방향을 뜻한다"고 Holzinger은 말한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창21장) 이삭(26장)의 족장들에게서만 아니라 남쪽의 국경지(북쪽의 단처럼)로 나타난다(삿26:1; 삼상3:20; 17:11; 24:2,5; 대상21:2; 대하30:5). 족장들이 이곳에 머문 후로는 이 장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장소의 이름이 세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 대해서 Westphal은 (Jahwes Wohnstätten) E(창21:22-24, 27, 31)는 '맹세하다'는 의미와 결부되고, J(창21:25, 26, 28-30, 32-34)는 일곱의 의미와 결부된다. 둘 다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생의 기원을 이야기 해 준다. J에 있는 다른 성경 하나는 '맹세하다'에 근거해서 "이삭 우물에 근거되도록 한다(창26:23-33)"고 말한다. 그러나 본문을 이런 문서로 나누는 것은 이미 어리석게 보이는

시기가 지난 주장이다. 26:24에는 J에서도 신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E만이 꿈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J도 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21장에 보면 브엘세바의 이름이 '7로 맹세하다'와 서로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이미 있던 기종의 이름이 새로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다.

18. 24절에 대해 Galling은 Die Erwählungstraditionen Israels에서 "...야웨를 아브라함의 신으로 스스로 지칭한 것은 여기서 갱신되는 약속들을 의도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명칭한 것은 또 다시 야웨이스트의 정신인데 그것은 선택의 내적 근거를 조상들의 신앙 경건에서 보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중요한 의미는 약속이 이삭에게로 계속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Preuss는 '야웨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간다'고 하는 유목민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는 적용하기를 "우리는 길에 정지해 있는 신학자들이다"(Wir Sind Ja auch als Theologen ständig auf dem Weg. Zsw 80, 1968, p. 73)라고 하는데 그러나 야웨는 농경작을 할 때도 같이 있었다(26:12-14).

19. 이삭의 번성은 매우 왕성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은 그와 계약을 맺으므로 더욱 안전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삭이 멸망되기를 바랐으나 힘 있는 이웃으로 나타났으니 친구로 붙들어 두자는 것이었다.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아마도 사신이었던 것같은 자. 참조 왕상4:5)가 함께 왔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하는 비난을 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여 지혜롭게 우물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21:25). 이는 이삭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계약은 맹세(יָבַח)로 세워지는데 이 알라의 원 의미는 '저주'라고 한다(Pedersen). 우리와 너희 사이에 저주(verfluchung)가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언약을 깨뜨린 것이 자아 저주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느냐는 뜻을 말한다(die selbstverfluchung gering geschätzt haben).

계약의식의 자아 저주와 함께 또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동 식사와 저주는 서로 작용하여 각자마다 자기 방식대로 보증을 제공한다"고 한다(Pedersen).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비멜렉은 이삭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26:4절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축복하다'(바라크 동사)를 '스스로 축복하다'(히트파엘)로 봄이 좋다. (Eichrodt III p. 645)

20. 33절의 $\gamma\psi$ 에 대해서 MT의 주 란은 세가지의 가능성을 준다. ① $\gamma\psi$ 또는 $\eta\gamma\psi$ (여성형)은 전통적으로 '일곱'을 의미한다. ② $\eta\gamma\psi$ 는 '풍부'를 의미한다 (Vulg, Syri, Aquila, Symmachus, L.Kähler, Zaw 55, 1937, p.166) ③ $(\eta\lambda\kappa\psi)$ (Lxx는 öpkos)인데 알더스는 ①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샘을 일곱 뚫었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곱을 뚫고 다른 두 우물은 언급이 안된 것 뿐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31절과 연결된다.

21. 마지막 두 절은 에서가 그 땅의 여러 여자와 결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헷족속이 거론되는데 이 사이에 헷족속이 어떻게 언급될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E.A.Speiser는 히위 (Hivite) 혹은 호라이트 (Horite)족으로 말하나 현대 고고학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남쪽 가나안 깊숙이 헷족속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한다(알더스 II p. 28).

에서가 부모의 동의없이 국제 결혼 (intermarriage)을 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마음의 근심" ($\eta\gamma\psi$)이 되었다고 하는데 $\eta\gamma\psi$ 는 여기와 잠14:10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eta\gamma\psi$ 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아라비아와 아카디아어로는 "쓰다" (bitter zijn)는 뜻이다. 이는 "마음의 쓰라림" (bitterheid van geest)이라고 한다. Smith는 Distintive Ideas p. 146에서 $\eta\gamma\psi$ 는 '개인의 지배적인 충동 또는 기질' (The dominant impulse or disposition of an individual)이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 의미는 이것이나 그들이 에서의 이 결혼들을 생각만 할 때면 그들을 지배한 감정은 비참의 그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다른 감정을 제외하는 것이었다. 억누르는 쓰라림의 감정이 저들에게 왔다."고 한다. König은 쓰라림의 근원을 '이 백성의 비천한 문화적 형편' (die niedrigere kulturgeschichtliche Stellung dieser Völkerschaft)에서 왔다고 함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카일은 이렇게 본다 "그 부모들에게 깊은 고민의 원인은 즉 족장들의 소명에 매우 반대 되었던 저들의 가나안적인 성품 때문이었다. 반면에 에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땅의 것들에 집착되어 있는지의 다른 증거를 제공했다"고 했다. North는 주장하기를 "에서가 제외된 이유는 그가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하여 탈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아브라함의 가족 계열 밖에서 결혼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he OT Interpretation of History, p. 112). 그런데 Ricciottio는 종족적 종교적 동기를 동시에 둔다.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1. 지금까지가 주석을 하였다면, 이제는 본 장의 마지막 메세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3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a) 본 장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의 사건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아야겠다. 3-6절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계속하고 있다. 1절의 "아브라함 때에"를 참조하라.
- b) 이 장의 상당한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중심적이었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서 "반복" (herkhaling)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c)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중기사' (doubletten)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 b)에 관한 의미는 데라의 토레도트와 이삭의 토레도트 간의 사실적 관련성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이고 c)에 관한 의미는 역사는 어쨌든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나아감을 발전하게 된다.

2. 26장은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eta\gamma\psi$) 있었다는 정보로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아무런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떠날 필요가 있었겠구나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흉년이란 무엇이며 왜 그 땅에 흉년이 오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교육 시키기를 그 땅은 이슬과 비가 와야 한다. 즉 위에서부터 복을 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래서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 (paedagogie)의 순간이다.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삼을 것이 없다. 즉 흉년은 자연 현상으로 이삭이 어떻게해서 남쪽으로 오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연속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보는 것이다. 흉년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도록 해서 온 것이니 우연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그 흉년이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났는데 "그 땅" ($\eta\gamma\psi$)이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다. 따라서 그 흉년은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징벌인 것이다. 여기에 창9:25의 맥이 흐르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을 저주하였다.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구별하심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상으로 우리를 이끌 수는 없다. 그러나 창12장이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추구하신다는 것이다. 이 구별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주적 영향성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세상 구원에 분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구별되었고 가나안 역시 아브라함에게 의속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위임시켜 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5세기가 지나서야 성취된다. 그러나 그 일은 창15:16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오직 소돔만을 야웨께서 거절한 이유는 거기에는 불의가 충만하여 의인이 있는 한 멸망치 않게 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중 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끝낸 것이다—그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gér)으로 남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모리인들을 회생시키지 않는다. 저들의 불의가 먼저 관영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때까지는 심판의 계시가 지역적으로 또는 간간이 온다. 여전히 종말적인 파국은 아니다(신약교회 역시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서야 그것이 저들의 위안이 되고 다른 자들은 제외되는 것이다. (비교 계22장).

그러므로 이 땅의 흉년은 이 땅의 불의 때문이며 시초적인 징벌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모리인들에게는 아직도 종말은 아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이삭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매일 아모리인들의 불의를 만나고 계시고 그러한 자기가 결국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환언하면 징벌이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가 아직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 대한 위협이 연기되는 것은 다른 한편에 대한 약속이 연기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지혜와 빛은 역사나 역사철학에서 보다는 일반은총에 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역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자기의 구속사역의 시작과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을 목석처럼 취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구속사역을 실행함에 있어 세계에 대한 공의는 온전히 유지하면서 해 나가신다. 즉 오래참음심을 주시면서 하신다. 하나님은 아모리인들에 대하여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삭은 기다려야만 한다. 아모리인들이 자기들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이삭이 가나안을 소유할 기회가 없다. 오래참음심이 세상 심판의 지연과 함께 구속의 지연도 되는 것이다. 아모리 족속들은 흉년을 만났지만 여전히 뿌리뽑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삭은 여전히 나그네로 남고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는(yaras)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기다려야만 한다. 아모리인들에 대한 제한된 징벌은 이삭의 운명의 아픔도 된다. 바로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뭄은 그에게 최초로 건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 땅의 거주자들은 그러한 때에 현재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흉년을 만난 이삭은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난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 흉년을 단순히 자연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 공의의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은 또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하심에 있어 '멋대로'(frij)가 아니다. 행위언약 구조 아니 자연언약 구조에 여전히 매여 있다. 그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신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교훈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zomaar met een schone lei beginnen). 만약 하나님이 은혜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열방들을 회생시킨다면 그 은혜언약 속에 어떻게 세상 축복을 이룰 수 있으며 만백성의 구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우리는 이삭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대표적 유목민 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삭은 흉년에도 견뎌낼 수 있는 넓은 곳을 찾고 있다. 그랄에 오기 전에 이미 야웨가 그에게 나타났다. (2절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삭은 야웨의 가르침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라는 말씀을 보면 그가 야웨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이 분명하다.) 여기 처음으로 야웨가 이삭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칼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욱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위협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다"고 그 이유를 말한다(창세기 p. 115). 그러나 아브라함도 넘어졌다(12:20).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장래의 땅을 선택할 수 없다. 야웨가 그것을 주셔서 계시할 것이다. 그것은 전적 은혜의 문제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가 약속한 유산을 향하여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에 이삭도 똑같다. 그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이삭은 자신의 존립을 계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산을 주시며 세계 심판의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 모든 것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다.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의 과정을 정의해 주는 야웨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만 한다.

4. 3절에 관련해서 이삭은 그곳에 거주자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ger). 위치는 언제나 그 종족 밖에 있는 자며 따라서 그 종족의 권리 보호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법 역시 거주자들에게 보호를 허락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주자들의 위치는 그 만큼 비참하고 과부와 같은 신세이다. 이삭이 지금 거주처를 찾으려고 할 때 스스로의 모든 노력으로 한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 거주자들은 종종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확고한 기반을 얻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이삭 역시 이 점에 시험을 받은 것이었다. 이삭은 같은 시민권자처럼 행세해서는 안된다. 그는 본질적으로 권리가 없는 자와 같이 견뎌내는 자였지만 그들에게 속한 자는 아니다.

‘거주자’는 이 세상의 불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는 대표적인 자세이다.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사회적-법정적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히11:8-13, 레25:23, 대상29:15, 시39:13, 119:19, 벨전2:11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이 구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여 (창11장) 땅을 정복하려는 것과는 달리 창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자연적 생의 관계에서 끊어서 그를 완전한 격리(분리) 상태에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그에게 위치를 주신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비교, 사51:2). 그 격리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게 하고 여기서 저들은 오로지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약속으로 임하신다.

또 한 동기가 더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땅들’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거주하였던 경계들이며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장막을 쳤던 곳들을 의미한다. 이삭은 그랄에서 거주자의 위치를 용납해야 하고 스스로 눌러 앉아 번성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는 모든 인간적 관계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나안을 유산의 소유로 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다. 그는 여기 지금(hic et nuw) 거주자로 있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유산자가 될 것이다.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유산자, 이러한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맹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5. “예속으로 내려가지 말고...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명령이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과 같다. 창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제시가 이삭에게도 성립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언약의 선물로서 언약 약속과 언약을 순종하는 길에서 역사하실 것이다(De zegen Gods zal als verbondsgave doorwerken krachtens verbondsbelofte en in den weg der verbondogehoorzaamheid). 이것은 이중성 언약이라 할 것이다(het dupleurisch verbond).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철저하였는데 그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맹세 서원을 위한 주관적 근거였는데 이삭에게도 이중적 언약의 길에서 성취될 것을 말한다.

6. 3절의 약속의 땅과 함께 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갈3:16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증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점을 반대하여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

a) 4절은 3절에서와 똑같은 의미로 메시아적이다. 그러므로 4절은 3절과 구분해서 메시아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구절은 그 자손(het zaad)에 대한 것이고 그러나 그 왕국에 덜한 것 뿐 아니라, 존속자에 관한 것이고 구속받은 세상에 대해 덜한 것은 아니다. “메시아적”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예수 탄생 전파에만 국소화시킬 수는 것이다.

b) 사실 이 구절에서 갈3:16의 말씀이 언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의 이 전형적 표현때문에 ‘자손’이라는 단수 말에서 복수에 대한 생각을 제외시켜서 오직 예수 만을 생각해야 한다 말은 아니다. 바울이 그것을 의미할 때는 성경 몇 군데를 말하는 것이다(창15:5; 17:45; 26:4). 바울은 히브리어를 잘 알았다. 그의 성경 인용은 결코 성경을 위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계12장이다. 5절의 여자가 낳은 ‘아들’은 남자로서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러나 17절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씀은 복수이다. 그리고 갈3장의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의 견해가 옳다.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둘 모두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를 자녀라’고 했다. 즉 바울 자신은 ‘자손’을 집합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단(velen-ein)’ 대립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그것은 복수-단수 관계가 아니고 복수-집합 관계이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복수는 단순히 다양성이며 집합은 다양성이기는 하나, 통일성이 있고 이로써 지배한다. 그러므로 구별성이 있음에도 연결하는 끈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관련성이 없는 자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곧 자손)이 있는 다양성이다.

갈라디아서는 이교주의의 풍, 곧 할례를 용납하려는 유대주의를 반대하여 썼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다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예대로 성경을 읽는데(갈3:15), 누구도 그 언약들을 변경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여기에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고 했는데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가지는 모든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논리를 전개시키는데 반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복수이다. 집합의 차이와 관련해서 집합을 의미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결시켜주는 토대가 무엇인가? 혈과 육과 할례냐? 그래서 이스마엘, 에돔이나? 물론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통일성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 자손의 통일성이 무엇이나? 메시아적 기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에 의해 정의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 자손에 속한다(갈3:27). 그래서 모든 육체적 자손과는 구별이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28절).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산자이다. 이 후손이 그 땅의 약속을 가지며 세상의 축복이 된다. 또 다시 집합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믿음으로 그의 구원에 동참한다. 이것이 격리시키는 약속 말씀에서 분명하다. 그 말씀은 우주적 방향이다. 너와 네 자손을 격리(분리)시켜 너를 거주자로 삼음으로써 내가 세상을 향해서와 모든 세대를 향하여 관여하고 내가 너를 너의 분리에서 구원한다고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국들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유산자가 된다. 그 길은 거주자의 위치를 말할함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함으로서 하신다.

7. 지금까지의 것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오직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땅과 자손에 대해서는 물론 메시아적 약속을 전수받았다. 이 모든 것이 5절에서는 한 새로운 동기가 있는데 곧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창22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시험'을 내놓았다. 그가 진실한 하나님 됨을 지금껏 보지 못한 반면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삭 안에서 그 모든 예언들을 원리적으로 이루어 하였을 때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온다. 이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망가지게 하고 이삭과 함께 모든 메시아적 장래가 떨어져나가는 격이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때에 22:16-18의 말씀이 따라 나온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히 깨뜨리시는 것같이 보인다. 신자들의 아버지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은 이중적 실재인 것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담과는 극의 상대자(counterpartner)이다. 여기에 은혜도 없고 일방적인 약속 말씀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약속 말씀만 있다. 그 언약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놓여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고대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 극심한 순간에도 시험 계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그것을 취급하심에 있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므로 언약의 진전된 역사는 강한 근거를 가졌다. 즉 단일적에서 이중적이 되었다(van monopleurich werd het dipleurish). 약속 말씀은 혹독한 용납에서 응답되어졌다. 창22장에는 십자가상의 네째 말씀의 주제가 있다. 하나님께 버림당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사역 위에 앞으로의 역사를 기초한다. 그는 약속을 받고 야웨가 그에게 언약 맺어 준 위치를 받았다.

8. 이 원리적 믿음의 자세에서 볼 때에 이삭은 신약이 말하는 '적은 믿음(digopistia)'으로 떨어졌음을 제외하지 않는다. Schlatter는(Glaube plilf) 이것을 더 확실히 표현하기를 " '믿음이 짧다는 것(der im Glauben Kurze)'은 전에 실증된 믿음을 꼭 붙잡지 않고 새로운 상태에서 그 특별한 어려움에서 중단하는 것이다."고 한다.

이삭이 그랄에 계속 거주한 것에서 분명한 것은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같은 시험을 본다(창12장, 20장). 아브라함의 불신이 책망을 당했던 부끄러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삭 역시 두려워한 것이다. 그의 '거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소 이해가 간다. 그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왕이 거주자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후처를 삼으려고 하고,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고대 습관일진대 이해가 갈 만도 하다. 이삭은 거짓말을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고 따라서 약속을 안전하게 성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 약속 성취의 보증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른 처신을 하지 아니했다. 아비멜렉은 저들이 결혼한 자들임을 알고 이삭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삭은 자기태도를 변명하기를 그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 자기를 죽일까 해서라고 한다. 여기에 초기 경험들이 역사하는 것이다(이 아비멜렉이 20장의 아비멜렉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아비멜렉은 그러한 행동은 재앙을 가져오며 죄가 됨을 보았던 교훈을 받았다. 아비멜렉은 이 불신적인 거짓말이 거주자로 거하는 그 백성을 망하게 할 뻔 했다고 나무랐다. 결과는 이삭과 리브가가 일정한 '보호권(Rechtsschutz)'을 얻은 셈이다(26:11).

9. 여기에 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아비멜렉의 우연한 발견이며 그 때에 어떤 일정한 사회법과 양심에 매여 있는 것) 이루어짐이 확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이 농사 수확 뿐만 아니라 양과 소떼가 많은 것에서 나타났다. 12절의 '백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13절에서 그 축복이 오를 수

있는 것만큼 오른 최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삭도 물질을 많이 받았으니 앞에서 말한 에서의 죄 성격 규명이 옳았던 것이다. 여기 문제는 '잠정적-영원한', '물질적-영적', '지상-하늘'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물질적 부요가 축복으로 주어졌고, 따라서 받아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G. Von Rad, Das Gottes Volk im Deut(BWANT III. II. Stuttgart 1929. 특히 p. 37의 Jahwehs Segen für das Gottes Volk을 보라.) 이 넘치는 축복에서 낙원의 광명이(창1장) 다시 동트며 그것은 오직 야웨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전적으로 메시아적이다. 여기서부터 계22:2의 노선으로 밝아가고 있다.

10. 이 축복의 결과는 이삭으로 하여금 블레셋인들의 시기를 사도록 했다. 그리하여 우물을 메우는 끝없는 역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계약체결을 깨뜨리는 일이었다. 반면에 이삭은 거주자로서 힘없는 사람이었다. 허락된 거주 허가증은 무효가 되는 일이었다. 이삭은 이것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삼았다. 그는 부당함과 비애(우물 이름을 줌으로)를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말씀에 따라 넓은 장소를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야웨는 자기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다할 지라도 새로이 나타난 신현(Theophanie, 26:24)은 거주자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쌓는 것으로 응답하였다(비교, 창12장). 이 축복은 감사스러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되었다. 결국 이 축복의 성격을 아비멜렉이 파악한 것이다. 그는 이삭을—그는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원수로 취급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가 스스로의 계약을 깨뜨리고 새 언약을 맺으려 하면 이삭은 응해 줄 것이다. 말하자면 축복이 대적을 이기고 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온유함이며, 그것이 야웨로부터 권리를 받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과 계약을 맺게 된다.

11. 지금까지의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창26장은 아브라함의 약속—메시아적 유산은 물론 메시아적 유산자에 대해—이 이삭에게 이전되는 것을 알려준다. 이 이전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생활의 보호, 부의 증가, 많은 난관 후의 지위가 인정되는 데서 증명된다. 야웨는 이삭을 그의 세계 통치권과 관련해서 아직도 유업을 줄 수(erven) 없고, 이삭은 여전히 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주자에게 기다리는 기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자기 말씀 때문에 장래에 올 유업의 보증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장차 올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자비가 심판을 이기게 된다. 언제나 이 작은 시작이 우주적 경향성을 가진다.

12. 이삭의 전체 트레도트에서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약속의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축복의 실현이 에서가 떨시한 장자 명분(베코라)의 의미에서 나타난다. 그 동기는 어려움이다. 생의 위험이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베코라는 오히려 생의 안전과 생의 부요를 의미한다. 장자권을 물물교환 한 후에 야웨는 그 베코라가 의미하는 것을 말씀과 행위로 계시한다. 에서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야곱에서와 이삭의 생의 보호 가운데서 야곱은 믿음 만이—욕정이 아니라—유산물 가져옴을 보았다. 에서 역시 믿음에서 보증이 있음을 본다.

야곱은 또한 축복은 매우 강력하기에 이방인들도 그것을 시기로 갖게 되고 계약까지 하게 된다.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이 축복의 계시 후에 그 유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베코라를 향한 싸움은 에서와 야곱에게서 중착점이 아니다. 누가 그 유산자가 될 것인가?

14. 마지막 두 절은 헷족속의 아내들과의 결혼생활을 말해준다. 그 부모들은 근심을 하였다.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나? 여기에 있는 최가 무엇이나? 여기에 우상숭배의 행위들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관점에서는 위험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수24:2, 창31:30, 35:2에서 그곳에서도 우상숭배가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여자를 취했다면 나올런지 몰라도 헷족속보다 아람족 신부를 취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브두엘, 라반 등을 언약 밖의 삶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해답을 찾아야겠다. 헷족속의 아내와 아람족속의 아내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 땅의 거주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삶의 권계에서 깨뜨려 나온 것이다. 우상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야웨만을 섬기고 신뢰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데 있다. 에서는 결혼으로써 토착민과 관련되어 다시 그 땅의 백성과 사회와 토양에서 자란다. 그는 거주민(ger)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러므로써 전적 구별됨으로 아브라함의 엑소더스 한 것을 망가치고는 야웨가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 오는 방도 밖에서 처신하고 있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해한 것은 일순간의 부주의한 탓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12장 이후로 싸워 왔던 길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창26장의 결론 말씀은 창25장 보다 더 암울하고 가공스런 것이다. 여기서 에서는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말씀과 행위로 나타내는 계시는 최종적이 되었음을 밝힌다. 여기 자기 아내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되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아내를 우르 어느 곳에서 찾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선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는 그 땅과 자기 사회를 떠남으로써 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싸우는 유산의 근원의 길에 섰던 것이고, 에서는 이제 이상 더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된다.